서윤영의 '집과 사람'

비행속도에 맞춘 건축

학교에서 건축을 배울 때 기말이 되면 도면과 모형을 함께 제출했다. 1/200 혹은 1/300 스케일로 만들어진 장난감 같은 모형을 보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그것은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라고.

사람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다. 모형으로 만들어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귀엽고 예뻤던 건물을 실제 크기로 지어 놓으면 겉만 번지르르할 뿐 내부는 엉망이 되기 쉽다고, 사람은 절대 건물을 내려다보지 못한다고 그때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비행기에서 그 도시를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20세기 들어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거리의 풍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건물은 인간의 보행속도에 맞추어 계획되었다. 천천히 걸으며 주위의 건물을 볼 수 있도록 건물은 휴먼스케일이 사용되었고, 섬세한 디테일이 요구되면서 간판도 작게 만들었다.

또한 걷다가 지친 사람을 위해 차양막이나 벤치 등이 곳곳에 설치되었고 2층에서 거리의 사람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테라스와 데크도 많이 발달하였다. 바로 엽서와 사진으로 남아 있는 18~18세기 유럽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건물은 변하기 시작한다. 고속버스를 타고 달리면서 창밖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속도가 빨라지면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대신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고 도로 위의 글씨도 압축이 되어 보인다.

따라서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는 건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물이 등장하게 된다. 거대한 횡선(衡線)의 강조, 원색의 강렬한 색상, 홍보용 수직탑, 거대한 간판, 거대한 주차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하여 대형할인점, 자동차에서 주문이 가능한 맥도널드 매장 등이다. 자동차 천국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발달한 건축이자 처음부터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진 건축이라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행자의 보행속도에 맞춘 도시가 아니라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맞춘 도시가 전국을 뒤덮게 된 것이다. 휴가나 방학을 맞이하여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곳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유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배낭을 매고 편히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시이며 그래서 유럽 특유의 배낭여행 문화도 생긴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도시는 또 한번 변하고 있다. 비행기의 보편화에 따라 비행기의 비행속도에 맞춘 건축이 등장한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다 보면 커다란 건물들이 점점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한다. 반대로 착륙을 할 때면 장난감 같던 건물이 점점 커지기도 한다. 새나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시야, 바로 하늘 위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거리를 걷다 보면 가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건물을 만날 때가 있다. 사각형의 모양에서 벗어나 원형 혹은 타원형은 건물, 벽면에 커다란 장식을 했거나 옥상 부분에 과도한 시설과 장식물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이런 건물이 지어진 이유는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또한 건물이 커질수록 모형의 스케일도 같이 커지는데 1/300, 1/500의 스케일로 만들었을 때 멋진 건물이 그대로 1 : 1 스케일로 지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 멋진 건물을 실제로 지어 놓고 보면 마치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거리로 나온 것처럼 만화 같고 SF 같은 건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창 시절 그것을 가장 경계하도록 배웠는데 21세기인 지금, 오히려 그런 건물이 더욱 유행하고 있다.

파리의 에펠탑이나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실제 그 자리에 가서 보면 너무 크고 기괴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은 비행기에서 그 모습을 찍어 관광지의 그림엽서로 사용될 뿐 실제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 아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세기 유럽 도시들이 걷기 편한 도시이자 그림으로 그렸을 때 아름다운 도시라면, 20세기의 미국 도시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좋은 도시이자 사진으로 찍었을 때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리고 21세기 중동과 중국 등 신흥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도시는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았을 때나 그 주변을 선회하면서 보았을 때 아름답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찍었을 때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

20세기가 자동차의 시대였듯 21세기에 비행기는 더욱 대중화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비행기의 비행속도에 맞춘 거대한 건물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며칠 그 도시를 여행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극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도시가 될 지는 몰라도, 항상 그 도시에 살며 자동차를 타고 혹은 걸어서 이동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건축이 될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건축칼럼니스트〉

社說

전남 첫 메르스 환자, 차단에 사활 걸어야

광주·전남지역에서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환자는 11일간 수백 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 사회 확산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10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성군 거주자 A(64)씨에 대해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최종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폐렴 증상으로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을 방문, 5시간 동안 머물며 14번째 확진자(5월30일 판정)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27일 밤 서울에서 내려온 후 보성과 여수, 순천 등지를 오가며 모두 743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A씨가 격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활보할 수 있었던 데는 메르스 환자 병원 공개를 거부해온 정부 방침 탓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7일에야 뒤늦게 전남도를 통해 자가 격리 대상임을 통보한 데 따른 늑장 대응 탓이다. 또한 보성군은 의심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밀(密)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라는 전남도의 통보를 어겨 확진 판정 뒤에야 조치에 나섰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메르스 확산이 국가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마당에 지자체마저 '손발'을 놓고 있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현재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에 국한돼 있으나 확진 환자가 다중과 접촉한 만큼 지역 사회 확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남도와 환자가 이동한 해당 지자체는 A씨의 행적을 토대로 743명의 명단을 속히 확보해 증상 확인을 통한 자가 격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전화 위치 추적,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 또 다른 접촉자가 있는지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모두가 메르스 차단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농어촌 지역 소방서 없는 시·군도 많다니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소방서 설치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0곳에 소방서가 없다니 이러고야 어찌 긴급 재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단체 가운데 소방서가 없는 지자체는 41개라고 한다. 한데 이 중 24%(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0곳이 전남의 군 지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포소방서는 무안과 신안을, 순천은 구례, 담양은 장성과 곡성을, 해남은 완도와 진도를 관할하는 등 1개 소방서에서 2~3개의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감생심 '골든타임 5분'이란 말은 꺼낼 수도 없고 그야말로 화재가 발생하면 먼 거리를 출동하다 끝날 판이다.

이처럼 전남 지역의 소방서 설치 상황이 타시도에 비해 뒤떨어진 것은 소방업무가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소방서 1곳을 신설하려면 지방비 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으로선 소방업무에 대한 예산 배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방서 설치 문제를 꼭 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지, 가난한 지자체는 지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한 채 바라다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

그나마 전남도가 매년 한 곳씩 소방서를 설치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화재 등 긴급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단순히 화재진압을 위해서 출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적어도 1개 시·군에 1개의 소방서는 있어야 한다. 농어촌 오지에서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도 화재로 희생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다.

종교칼럼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송 우 진
원불교 상무대교당 주임교무

군대에는 '땡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보직'이라는 뜻인데요. 군에서 좋은 병과에 배치가 되어 편하게 군복무를 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약간 비아냥이 섞인 어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땡보라는 단어의 상징적 보직이 PX병입니다. PX병은 매점의 물건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병사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군인들이 고된 훈련을 받고 고생을 할 때 실내에서 물건을 판다고 해서 대표적인 꿀보직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제가 PX병으로 전역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사정은 그렇지 않더군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수록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서로를 비교한다면 전투병과의 보직을 가진 군인이 더 고생했을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의 정도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군대에선 어떤 땡보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가장 어려운 곳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 합니다.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 나보다 더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내가 저것만 가졌다면, 저런 능력만 있었다면, 저렇게 성공한다면, 이렇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며 삶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한 걸음 다가가서 보면 희로애락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군대에서 어떤 좋은 보직도 없듯 인생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쉽지 않습니다. 늘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개그맨도, 돈이 많아 하고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의 CEO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정치인들에게도 생로병사라는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이 있고,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이 가장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가 아닐까요.

어느 순간 세상에서 내 인생만이 가장 괴롭고 고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삶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에서 느끼는 본질적인 문제들의 풀이에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답답할 때면 집주변을 산책합니다. 물론 주위에 산이 있고, 강이 있는 운치 있는 자연이면 더 좋겠지만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아파트 길을 산책합니다. 늦은 밤 제법 조용한 아파트에는 사람들의 사연이 차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울고 웃으며 자신의 쉽지 않은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수많은 사연들이 얽히고 설켜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 삶이기 때문에,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나의 인생이기에 그 속에서 작은 기쁨과 작은 희망들을 마음에 담으며 살아갑니다.

無等鼓

염치라는 것

인터넷 사전에서 단어 염치(廉恥)를 찾아봤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현기영의 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의 한 구절이 예문으로 실려 있다. '어진 이들은 가뭄에 콩 나기일 뿐, 대개는 염치를 모르는 탐관들이었다.'

갑자기 염치를 찾아본 건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다. 도심 사찰 기사를 쓰기 위해 절에 들렀다 사무국장에게 들은 사연이다.

사건은 전날 밤 벌어졌다. 공양간에서 사찰로 들어오는 길을 내려다 보던 보살이 "오늘밤 누가 꽃을 파 가기로 했나요?" 하더란다. 무슨 말인가 싶어 부리나케 내려갔더니 50대 중년 부부가 흰 접시꽃을 파고 있었다. 이미 한 그루는 차 트렁크에 실어놓은 후였다. 큰 삽과 쌀자루를 챙겨와 한창 꽃을 캐던 두 사람은 난감한 표정으로 "접시꽃이 예뻐서 캐간다"고 말했다

사무국장은 이 꽃은 다 절에서 돈을 주고 사와 정성들여 가꾼 건데 이렇게 가져가면 되냐고 했다. 미안하다며 트렁크에 실은 꽃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무국장은 황당한 말을 들어야했다. "다른 곳에서는 흰 접시꽃을 구하기 어려우니 한 그루 더 캐가면 안되겠냐"고. "어디 CCTV가 달려 있나요?" 어떻게 알고 왔냐는 투로 묻던 그들은 접시꽃을 트렁크에 싣고 사라졌다.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네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 말이다. 그걸 그냥 보냈냐는 질문에 그는 이미 차에 실어버린 걸 다시 내놓으라고 하기가 난감했다고 말했다.

제나라 관중은 국가의 네 가지 근본을 예의염치(禮儀廉恥)라 했다. 일상생활에서 법도를 넘지 말아야 할 '예(禮)'와 스스로 나서지 않는 '의(義)', 청렴(淸廉)하고 수치(羞恥)를 아는 마음이다. '중용'편에서는 '인간에게 부끄러운 마음 즉, 수오지심(羞惡至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거나 염치를 모르는 건 파렴치(破廉恥)다.

회사로 오는 내내 마음이 답답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민낯을 본 듯해서다. 욕심과 명예에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나는 염치를 차리며 살고 있는 건 지 뜨끔해지는 날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기 고

광주의 랜드마크 '아트센터' 건립 시급하다

이 춘 범
광장21 문화예술분과팀장

빛고을 광주는 '예향의 도시'라고 시민 누구나 자랑스럽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생각해봐야 한다. 아시아 문화수도로 자처하는 광주는 공연장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세계적 예술거장들이 대전, 대구, 부산까지만 내려오고 광주공연을 포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페라 전용홀은 커녕 클래식 전용공연장 하나 없는 광주의 초라한 현실 때문이다.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도 다목적공연장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너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가 아트센타에 눈을 돌려 도시의 품격과 예향으로서 자존심과 품격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운암동에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현실에서 오로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만 학수고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국민복합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 공연예술도시로 위상을 높이며 거듭나는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의 불모지 고양시를 예술허브로 키운 고양아람누리, 통영국제음악당 등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를 제외한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연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는 것과는 달리 광주는 예향도시, 문화수도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낙후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인근 목포시가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한 2015년 꿈다락 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최근 접했다. 예술도시로 먼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목포시에 반해 광주는 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수영대회 등 체육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러운게 사실이다.

광주는 교육도시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률과 학교 폭력이 전국의 거의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문화공간과 시설이 부족한데 대한 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광장21은 최근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전략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상당수 회원들이 광주에 전문 아트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브랜드 공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최고의 예술을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를 살려낸 국내외 명품 아트센터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광주 시민들은 전임 시장들과는 달리 문화정책에 관심이 많은 윤장현 시장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예산 확보 등 여러가지 난관도 있겠지만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추진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삼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굴뚝 없는 문화 산업의 가치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수한 콘텐츠와 문화를 누리는 시민 양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광주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화의 성지에 광주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아트센터' 건립을 강력 추천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